


남과 비교하면 불행한 삶이 되기 쉽다.
나만의 길을 걸어야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회 연등축제가 5월 7일 회령에서, 화려한 장엄등과 깃발들을 앞세운 연등행렬은 오후 7시~9시 30분까지 서울 종로 일대를 장식했다. 행차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까지 모두가 하나로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이였다. 연등축제가 이어 5월 8일 조계사 앞길에서는 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마당이 이어졌다.

2555년 부처님오신날 특집 56면 발행

A	불교 미래 인터뷰 · 혜충 스님 어린이 포교, 어른 포교와 별개 아니다	A3
A9~12	불기 2555년 봉축법어	
	특집 선지식을 찾아서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A14~15
B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이정섭 '자기다움'으로 빛나는 남자 어려울 때 생각하니 '지금 참 행복'	B1
	건축가 김재천 목동 국제 선센터, 정토사 무량수전 디자인	B3
	한국음악가 박상진 국악으로 한국불교음악 만들면 그것이 세계 포교	B5
	어린이는 불교의 미래 어린이에 올인하니 사찰미래 밝아져 화계사 어린이·청소년 법회	B8
B10~12	봉은사 선지식법회 암도 스님, 청화 스님, 정법 스님	
B14,15,17	다문화 법당 국내 다문화 법당 소개 방글라데시 등	
	연등축제 화보 모두가 하나 돼 광명을 밝히는 순간	B18~19
	세계의 축제 연등제만큼 신명나고 불거리 많은 세계의 축제들	B22~23

그대, 부처님을 만나보았는가

5월 10일, 완연한 봄인 이 날은 산천의 두두 물물이 부처님 오심을 무언의 소리와 몸짓으로 찬탄한다. 전국 사찰을 비롯한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연등이 중생의 무명 같이 새까만 밤하늘을 환히 비춘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천진 불 같은 미소가 가득하다. 부처님오신날이다.

그대, 부처님을 만나보았는가?
우리 범부들은 부처님이 사람의 얼굴과 몸을 가진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웅전에 금색 옷을 입혀 고이 모셔 놓은 불상처럼 말이다. 정작 알고 보면 부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이상적인 고정된 모습이 없다.

《금강경》에서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들이니 만약 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여래를 볼 것이다(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 마음이 투영된 내 그림자일 뿐이다.

만해 스님도 《님의 침묵》 서문에서 말하기를,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라고 하지 않았는가.

《삼국유사》에는 관음보살 친견에 관한 의상과 원효 대사의 이야기가 전한다.

의상 대사는 동해안의 한 동굴에서 정진 1주일 만에 관음보살을 친견했다. 대사가 그 자리에 세운 절이 낙산사이다.

원효 대사는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싶었다. 원효 대사는 길을 가다 눈에서 일하는 여인을 만났다. 원효 대사가 "벼를 좀 달라"고 여인에 청했지만 "작황이 좋지 않다"며 거절당했다. 이번에는 다리를 지나다가 빨래하는 여인을 만났다. 대사가 "물을 한잔 달라"고 하니 여인은 빨래하던 물을 떠 대사에게 건넸다. 원효 대사는 더럽다고 생각한 그 물을 바닥에 쏟아 버렸다. 그리고는 자신이 깨끗한 물을 떠 마셨다.

이 때였다. 소나무 위의 파란 새가 말했다. "감도를 마다한 화상아!" 대사가 놀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소나무 아래에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원효 대사가 낙산사에 도착하니 관음보살 상 앞에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그제서야 원효 대사는 자신이 만났던 여인이 관음보살이었음을 알았다. 원효 대사는 동굴에 들어가 관음보살을 친견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풍량이 크게 일어 동굴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의상 대사 제자들이 원효 대사보다 자신의 스승을 높이려 지어낸 것이라는 설도 있다. 분명한 것은 상(相)에 집착하면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

하지만 이후에도 원효 대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했다는 말은 없다. 범신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 아니던가. 관자제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 원효 대사는 분명 관음보살

을 친견했을 것이다.

육조혜능 조사는 "범부는 색신만 볼 뿐, 범신을 보지 못해서 무주상보시를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범부는 일체 중생을 널리 공경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는 "아상 없이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라"며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실천의 삶이 반야바라밀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살이고 여래이다"라고.

내 이웃의 모습을 한 부처를 부처로 알아보고 모시는 이라면 그도 보살이고 부처라는 말씀이다. 부처님은 우리 가까이 평범한 모습으로 언제나 계신다. 우리가 부처를 부처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

그대, 부처님을 만나보았는가.

조동섭 기자

현불뉴스 사고



교계 최초로 인터넷 뉴스사이트를 서비스해 온 현대불교신문이 기존의 인터넷 뉴스사이트 붓다뉴스를 현불뉴스(www.hyunbulnews.com)로 개편해 오픈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현불뉴스의 오픈을 계기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불교계 뉴스 속보와 풍부한 불교문화콘텐츠를 독자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능인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l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불기 2555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종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중 산	총무원장	자 승
중앙총회의의장	보 선	교육원장	현 응
호 계 원 장	법 등	포교원장	혜 충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